

사례 연구를 통한 무형유산 보호 방안의 도출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은 유산 자원의 보전, 진흥, 보호,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 가운데 민주주의 성격이 가장 강한 법률이다. 2003년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론에서 문화의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에서 볼 때 좋은 징조이다. 무형유산은 문화·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쏟은 노력과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 내지 기준이 된다. 이 글은 사람과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통합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¹⁾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연구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방안에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임무와 함께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 연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제안하는 바이다.

1) 아마레스와르 갈라(편집), 『세계유산: 국경을 초월한 혜택(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케임브리지 대학교출판사 및 유네스코(영문판, 2012), 프랑스어판(유네스코), 한국어판(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바누아투의 공동체 현지조사 프로그램²⁾

태평양은 목록화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대표 지역이다. 무형유산 목록은 살아 있는 기록물이다. 바누아투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의 ‘제1목소리’를 반영하여 목록화 사업을 체계화해 추진해 왔으며³⁾, 그 결과 100여 개 언어 집단의 살아 있는 유산이 공식 기록되었다. 전승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 현지조사 프로그램(Community Field-workers Programme)’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살아 있는 유산을 직접 기록하였다. 바누아투 국립박물관 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모든 차원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바누아투 국립문화위원회의 연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⁴⁾

센터는 유·무형유산 관리에서 시너지 효과의 창출 및 증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로이 마타 추장의 영지를 관리하는 책임 기관이기도 하다. 17세기 초반에 형성된 이 유적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에파테(Efate), 렐레파(Lelepa), 아토크(Artok)라는 세 개의 섬에 위치해 있다. 바누아투 최고의 추장이자 오늘날 정신 지주로 신봉되는 로이 마타의 삶과 죽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로이 마타가 생전에 살던 집, 죽음을 맞이한 장소, 그가 문헌 공동묘지로 구성된 유적은 추장과 관련된 전통 및 그가 신봉하던 도덕 가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영지는 오늘날 바누아투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구전 전통과 유산의 융합을 대표하는 사례다. 또한 추장이 추진한 사회 개혁과 갈등 해결 방식이 영지를 수호하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산의 연속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 전승 책임이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영지에서는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빈곤 해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렐레마(Lelema) 공동체로 통칭되는 렐레파 섬 및 에파테 섬 북서부 망

2) 이 섹션에 제시된 자세한 사례는 바누아투 국립박물관 문화센터 소장 마르셀린 아봉(Marcelin Abong)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센터의 전 소장이자 바누아투 국립문화위원회 전 의장인 랄프 레겐바누(Ralph Regenvanu)는 다양한 출간 및 미출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 아마레스와르 갈라(2008), ‘유산 보전의 제1목소리(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3호, 2008년 6월, pp. 1~17.

4) 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국가 보고서’, 지속 가능한 유산 개발을 위한 태평양 지역 박물관 워크숍, 아마레스와르 갈라(편집),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 2006년, pp. 90~95.

가릴리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계와 여성의 역할에 주목한다. 달성 목표는 수공예 활성화 및 해당 사업을 통해 전통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수공예품을 생산하여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민 세력에 의해 단절된 전통 수공예 기술을 기록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의 전통 토지 보유 시스템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원주민 대표들은 '로이 마타 문화관광'이라는 유산 관광을 위해 토지 사용을 허가하여 매년 일정 수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은 렐레마 공동체 및 바누아투 전체에 경제력의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렐레마 공동체에서 강력한 통합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바누아투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공동체 리더십으로 유·무형유산을 관리하고, 공동체 현지조사원 네트워크 또는 수공예 활성화 프로그램에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바누아투 원주민 공동체의 유산 보호 의지와 노력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토지 보유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 임대 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크다. '로이 마타 문화관광'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과 방갈로 숙박 제공이 토지 임대를 대체하는 생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원주민의 살아 있는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방문객들의 영지 체험 시간을 늘리는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 자리 창출과 빈곤 완화를 위한 크루즈 여행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유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과 더불어 문화를 근간으로 삼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로이 마타 추장 영지는 바누아투는 물론 태평양 전역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책임관광 개발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필리핀 코르딜레라스 지역의 계단식 논은 경우 무형유산 및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생계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부족 집단이 협력하고 있다. 계단식 논은 농사 관행과 풍년기원 의례를 망라하는 전통 문화의 결정체다. 보호 활동은 전통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주요 이해 당사자 공동체들이 지역 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책임진다. 협력 관리(ubbu, dang-a, baddang)에 기반을 둔 전통 지식은 논 의 확장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들은 전통 농사의 관행에 따라 공동으로 작물을 수확하며, 이어서 수확과 관련된 의식을 거행한다.

최근 들어 전통 지식과 관습의 이행이 눈에 띄는 정도로 약화되고 있다. 전통 농사법은 성별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농사 주기에는 남녀가 함께 농사를 짓지만 성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남성은 모내기 전에 땅을 고르고 여성은 작물 수확을 담당한다. 여성은 사제이자 이푸가오 세계관의 수호자로서 식민지 통치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⁵⁾ 그러나 식민 치하 때 이와 같은 전통 역할 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식 거행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소외됨으로써 성별 역할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전통 정치 체제에서는 벼농사 지역의 관할권이 평화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몫이었다. 오늘날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는 대부분 남성이며, 경우에 따라 의식 관련 지식을 보유한 여성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무형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적극 개입으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었다. 농사 주기에 남성과 여성은 함께 농사를 짓는다. 주요 이해 당사자 공동체의 사회 관계 정립 및 그들의 인식 제고 과정을 통해 균형을 찾은 성별 역할은 이 지역이 자랑하는 세계농업유산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의 원로 격인 토착 지식 전문가가 주도하는 무형유산 기록 작업과 후대 전승 활동은 계단식 논 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일례로 이푸가오 어린이들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후드후드(hudhud) 송가를 배우고 있다.⁶⁾ 이 송가는 유산의 가치와 농업 경관 관련 지식의 세대 간 전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계단식 논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통 관습의 영속성과 변화 수용을 위한 내재된 역동성의 증진이라는 긍정의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귀중한 농업유산의 보호에 문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보호 활동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모든 유형의 유산을 아우르는 문화 조치들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농업 관련 토착 지식 보호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대상 지역에서 문화 경관, 무형유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행 및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해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⁷⁾ 세계중요농업유산

5) 이푸가오족 원로 마리아 갈레온(Maria Galleon)과 말론 마틴(Marlon Martin)의 대면 인터뷰, 4-5, 2013년 10월.
6) 이푸가오족의 후드후드(hudhud) 송가는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자'로 선정되고, 2008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7) 파르비즈 쿠하칸(Parviz Koochafkan)과 메리 제인 델라 크루즈(Mary Jane Dela Cruz),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적응 관리(Conservation and Adaptive Management of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GIAHS)', 자원생태계저널(Journal of Resources and Ecology), 2011 2(1) 22-28.

은 식량 안보, 생계, 공동체 적응, 지역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복잡하게 얽힌 성별 역할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족농업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회 마을⁸⁾

한국의 역사마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씨족마을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씨족마을은 고려 말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한국 마을의 전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여파로 쇠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회마을은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조선시대의 학문·문화 성과물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른 마을 입지의 전형을 보여 주며, 마을의 공간 배치가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전통 씨족마을의 하나다. 마을은 생산·주거·의식 기능을 전담하는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간별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가 매우 드물다.

하회마을 보전 프로젝트는 유·무형유산을 망라한 유산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하회마을은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며, 대표 양반고을로 유명하다. 하회마을 거주자는 대부분 풍산 류씨 가문으로, 서애 류성룡의 후손이다. 1984년 한국 정부는 조선시대 전통 양반가옥이 원형 그대로 보전된 하회마을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였다. 전통으로 서민 계층이 연행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는 198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속 가능한 유산 발전은 현대사에서 유산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회마을의 경우 1970년대 유교 전통의 중심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살아 있는 유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회 발전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경우 1980년대 반체제운동의 상징으로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다. 덕분에 전국으로 하회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마을을 찾는 반체제 인사들과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대중의 유산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회마을은 1990년대 초반에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역 유산의 수호자로서 하회마을 주민들은 마을 문화의 외부 전용轉用을 차단하고 마을 문화의 수호자로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공

동체의 기술과 지식을 인정하여 보전 및 보호 조치를 위한 공식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공동체 존중은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계급과 직군에 포진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자 지역의 지식 체계를 보유하고 전승하는 이해 당사자로서 이들의 유산 소유 의식과 가치관이 공고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소득의 성장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취업 기회가 제공되면서 전통의 정치 신분 서열이 현실에 맞는 평등한 관계로 변모하였다.

유산의 세대 간 전승 및 보호의 책임은 하회마을의 모든 계층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향후 이농현상이 격화되면서 전체 인구의 80%가 20개 도시에 거주하게 될 한국에서는 하회마을이 상징 프로젝트가 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한국 전통 생활 방식의 보전을 위해 하회마을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회마을과 같은 역사마을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 및 문화 경관 등 유형유산으로 구현된 지역의 전통 지식은 관광객 유치의 주요 수단이 된다. 전통 체험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의 이야기, 공연, 기술 시연 등으로 제품의 생성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더욱 촉진된다. 하회마을 방문객 수는 1998년 평균 37만 4391명에서 영국 여왕의 방문으로 1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90만 명이 마을을 다녀갔다. 국내 방문객이 97%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인 방문객 수는 1998년 5488명에서 2011년 2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하회마을의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유산 보전 활동에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회마을 보전 사업은 전 지역의 공동체 참여, 특히 전통 마을 관리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외부 전문가는 명확한 유·무형유산 종목에 의존하지만 마을 공동체 문화는 모든 유산을 망라하는 포괄 접근법을 요구한다. 문화유산관광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하회마을과 인근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민주주의식 보전 활동은 유산 자원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빈곤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8) 2011년 2월 안동시청, 문화재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공동 주최한 통합 유산 관리에 관한 워크숍 기초연설 참조. 연설자는 박희용, 조효상(이상 문화재청), 문옥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의 출간 및 미출간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했다.

결론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연구는 참여 독려 및 주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혜택 보장을 통한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 사례는 살아 있는 유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전승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사회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전문가나 관광업체 또는 공식 정책에 의한 하향식 접근법은 외부 관점에 의한 보호 관행을 고착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제1목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향식 개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형유산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노력에 공동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소유와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무형유산 보유 및 전승 공동체와 그들의 자연 환경에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지역 공동체들이 합심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모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2003년 협약 이행 1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양한 사례 연구 장려와 방법론 모색을 위한 역내 활동 강화 등 전문 지식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2장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